

연구 논문

#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전문박물관의 참여전시 연구 -대법원 법원전시관 중심으로

박효정 국립체육박물관 전시준비팀(TF) 학예연구사

## I. 머리말

## II. 이론적 배경

- 기관 소속 전문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
- 신박물관시대와 참여전시

## III. 대법원 법원전시관 참여전시 과정 및 분석

- 참여모형 선정
- 법원전시관 참여전시 <봄날, 정의를 그리다> 기획 및 운영과정

## IV. 결론

##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전문박물관의 참여전시 연구 -대법원 법원전시관 중심으로

### I. 머리말

박물관은 전시주제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된다. 전문박물관은 고고학, 역사, 미술사, 인류학, 민속학 등의 인문계와 자연사, 과학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자연계 그리고 과학기술, 산업, 체신 교육, 의학, 운동 등의 각 분야로 세분할 수 있다. 전문박물관의 출현은 19세기 근대 과학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과학의 발전은 소장품의 전문적 분류를 야기했고 이는 전문화된 박물관 발생으로 이어졌다. 1799년 파리 이·공학박물관(Science Museum), 1807년 덴마크의 고고학자 톰슨(Thomsen)이 설립한 고고학박물관, 1856년 게르만박물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sup> 우리나라 전문박물관은 1927년 4월에 설립된 ‘과학박물관’으로 시작되었다. 광복 후에는 한독의약박물관(1964년 개관), 우정사업본부 소속 체신박물관(1972년 개관), 한국은행 소속 화폐박물관(1990년 개관),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사전시실(1993년 개관), 국세청 소속 조세박물관(2002년 개관), 경찰청 소속 경찰박물관(2005년 개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전시관(2008년 개관), 통일부 소속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2017년 개관) 등 꾸준히 설립되었다. 또한, 국립항공박물관(2020년 개관 예정), 국립세계

1) 이미화, 「특수박물관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립경찰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문자박물관(2021년 개관 예정), 국립체육박물관(2022년 개관 예정), 국립한국문학관(2023년 개관 예정) 등이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박물관<sup>2)</sup>의 설립·운영의 주체가 국공립 기관인 경우가 다수 있다. 이 전문박물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국가의 문화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하고, 그 기관의 홍보와 이미지향상 그리고 기관의 서비스의 보존, 계승, 발전을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다.<sup>3)</sup>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정부가 ‘참여’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많은 기관들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관 혹은 홍보의 성격을 가진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전문박물관은 사회와 문화의 빠른 변화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니즈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전문박물관의 양적 성장에 비해, 운영과 활성화 측면에는 더딘 성장을 보였다. 국립박물관으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예사가 없거나 소수의 학예사가 전시, 유물관리, 운영 등 모든 업무를 부담해야 하는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관의 내부 상황은 막대한 예산과 집중적 시간이 필요한 상설 및 기획전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력이 부족한 박물관은 기획전시를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지나친 홍보나 행사적 전시를 하게 된다.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박물관은 곧 관람자의 외면으로 이어진다. 다른 박물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문박물관 상설전시를 보러 두 번 이상 방문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다. 전문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장품 때문이다.

최근 새로운 물결인 신박물관 흐름과 참여전시의 모델은 콘텐츠를 생산하기 어려운 전문박물관에도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에 본 글은 신박물관시대에 변화하는 박물관 환경에 맞춰 전문박물관의 발전 방안을 니나 시이먼(Nina Simon)이 제시한 참여 모형<sup>4)</sup>에 따라 설계한 대법원 법원전시관 참여전시의 분석을 통해 전문박물관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글에서 다양한 전문박물관 중에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된 박물관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3) 조한희, 「박물관 방문객 분석에 의한 기업박물관의 운영전략」, 『박물관학보』 4, 한국박물관학회, 2001.

4) 니나 사이먼·이홍관 외 1 역, 『참여적 박물관』, 연암서가, 2015.

## II. 이론적 배경

### 1. 기관 소속 전문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sup>5)</sup>

우리나라 전문박물관의 시작은 1927년 4월 일반에 공개된 ‘과학박물관’으로 볼 수 있다. 과학박물관은 1925년 일본국왕의 성혼 25주년 기념식전에서 사회교육 장려라는 명목하에 설립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출연한 17만 원으로 청사 내에 건립되었다. 과학박물관으로 시작한 전문박물관은 다양한 주제들로 꾸준히 양적 성장을 하였고, 특히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전문박물관은 2000년대에 설립이 증가했다.<sup>6)</sup>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전문박물관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자의 흥미를 끌거나 박물관계 주류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전문박물관에 대한 문제 및 한계점은 여러 선행연구자들<sup>7)</sup>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전시와 기획전시 운영 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족, 조직체제의 미정비 및 인력 부족, 마케팅 홍보 부족 등이다. 사실 이 문제는 박물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문박물관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전문박물관이 가진 특성과 문제점에 맞는 대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박물관의 설립 준비 단계부터 학예인력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 내부적으로 준비단계보다 실제 운영할 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획재정부에서 인력충원에 대한 예산을 개관 직전에 편성해주기 때문이다. 법원전시관은 전자의 경우였고, 2013년 3월에 재개관한 후 학예사가 채용되었다. 상설전시는 그 박물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기획전시보다 오랜 수명을 가지는데 최근에는 5~10년 정도이다. 개관 이후 학예사가 채용되면 결국 상설전시 기획은 일반 행정직이 준비하고 결정하게 된다. 전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행정가가 상설전시 구성에 있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기존 국립박물관을 모방하

5) 다음 제시되는 문제점은 연구자가 4년 8개월간 전문박물관인 법원전시관에서 근무하면서 파악한 내용으로, 다른 전문박물관의 환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 관세청 서울본부 소속 관세박물관(2000년), 여성가족부 소속 국립여성사전시관(2002년), 국세청 소속 조세박물관(2002년),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지도박물관(2004년), 경찰청 소속 경찰박물관(200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전시관(2008년) 등

7) 김대욱, 「철도박물관을 활용한 고등학교 역사 수업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최윤정, 「조직 구성원 참여를 통한 기업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금속박물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태규, 「영화박물관 계획에 관한 연구-영화기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박현성, 「서울올림픽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연아, 「국회 헌정기념관 전시공간의 연출매체 분석을 통한 전시개선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민아,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국립경찰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는 것이다. 이것이 전문박물관 전시에 복제품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에 설립된 박물관은 근대 이전의 유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미 국가기록원이나 국립박물관, 규장각 등에서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시의 흐름을 유물로 채우다 보니 복제품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표유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실물을 보는 것 이상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전시 연출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를 통해 『경국대전』을 지금의 형법과 비교한다면 복제품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복제품을 진열장에 전시하고 있다면 관람자의 흥미를 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관 소속 박물관의 개관일은 내부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관장이 퇴임 전이나 주요 기념일에 맞춰 개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료나 연출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전시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단순 복제품 전시가 더 수월했을 것이다.

또한 운영 중 박물관은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학예 인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유물 수집이 어렵다. 박물관에서 소장품은 그 박물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모든 운영에 소재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유물이 그 박물관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한다. 최근 신박물관의 물결로 인해 유물 및 자료가 하나도 없는 박물관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핵심 콘텐츠가 필요하다. 박물관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소장품은 기관 내 행정 관련 문서 및 박물류, 사진 및 영상자료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법원전시관은 이마저도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법원사 편찬에 관한 내규」에 따라 법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물 및 자료가 법원도서관에 소장된다. 즉, 법원전시관의 유물 수집은 법원 내규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다. 소장품의 결여는 박물관의 업무인 전시나 교육 등 콘텐츠를 발굴 및 개발에 큰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박물관 업무에 대한 기관 내부의 이해 부족에 있다. 18세기 시민혁명의 결과로 특권층이 독점했던 수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서 국립박물관이 시작되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정부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 구조는 우리나라의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소속 박물관을 설립하는 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기관의 정책을 홍보하고 이미지 향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박물관은 여러 홍보채널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기관 소속 전문박물관의 설립에는 기관이 홍보와 교육을 하는 곳이 되길 바라는 목표가 있다. 따라서 박물관이 기관 내 홍보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전시관이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헌정기념관이 국회 홍보기획관실에 소속된 것이 그 예이다. 이 경우, 기관을

방문한 귀빈의 전시안내를 수행하거나 혹은 존재만으로도 기관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말하기 좋은 표본이 되기도 한다.

이미 개관을 한 전문박물관은 기관이 기대하는 이미지인 홍보관 혹은 자료관 등으로 명명된 것을 재정립하기는 어렵다. 기관 소속 전문박물관의 정책결정자는 모두가 행정직이며, 그 기관 전체가 학예사를 제외하고 모두 행정직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원래의 생각을 설득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결정자가 설사 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짧게는 1년, 보통은 2년마다 인사이동이 있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이 상황 속에서 매년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매년 설득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법원전시관의 경우는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으로 등록<sup>8)</sup>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소장 유물 10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내규로 인해 소장품에 대한 법원도서관과의 업무적 조정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법원도서관은 자료를 수집·보관을 담당하고 법원전시관이 전시·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두 곳의 소속이 달라 서로 호환되거나 협력적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박물관은 내부적 이해부족에 기인한 소장품 수집기능 결여, 인력부족, 흥미를 끌지 못하는 상설전시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전문박물관은 신박물관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런 한계점들을 타파하기 위해 관람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외부 참여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 2. 신박물관시대와 참여전시

‘신박물관시대’라는 흐름 속에 홍보관이라는 오명을 불리던 전문박물관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신박물관이라는 용어는 피터 버고(Peter Vergo)가 엮은 신박물관학(The New Museology, 1989)에서 유래했지만 그 개념은 이전에 발발한 박물관 쇄신운동에서 비롯되었다. 20세기 말 서구에서는 박물관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물의 무덤이나 보고(寶庫)라는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등록요건은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가 100점 이상, 학예사(전문 인력) 1인 이상, 마지막으로 시설로는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 조절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판이 있었다. 구박물관<sup>9)</sup>은 유물중심의 운영으로 전문가들에게 역사·문화·예술 분야의 권위적 기관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지만, 대중에게는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점차 소외감을 느끼자 대체 공간으로 백화점의 예술적 진열에서 미적 경험하고 문화센터나 놀이공원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로써 박물관의 내부적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1972년 칠레의 '산티아고 선언'으로 박물관 내부에서 새로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났다.<sup>10)</sup> 사회를 외면했던 구박물관을 극복하려는 신박물관운동은 박물관의 여러 분야에 변화를 일으켰다. 이 영향으로 2007년 ICOM(국제박물관협회)은 박물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재정립했다. “박물관은 교육 및 연구,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과 그 환경의 유·무형에 해당하는 유산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연구·전달·전시하여 사회와 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에게 공개된 비영리적 영구기관이다.” 여기에는 이전<sup>11)</sup>에 없었던 ‘관람자의 즐거움’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도’가 추가되었다. 이는 박물관의 중심축이 유물에서 사람으로 이전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한다. 또한 학예사의 역할에도 전시와 교육을 통해 전문가와 관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했던 구박물관의 역할과 달리, 대중과 쌍방으로 소통하여 그들이 이해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적인 임무가 추가되었다. 박물관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전시에서도 관람자는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참여전시가 떠오르게 되었다.

신박물관시대로 오랫동안 박물관의 존재의 이유였던 소장품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사람, 즉 관람자가 중심이 되는 전시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박물관은 훌륭한 소장품을 소장하는 것보다 독창적인 시각으로 대중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실제 기획자들은 종종 전시를 생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시에 참여하는 관람자들에게는 경험이다. 이제 전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그들이 학습하는 것만큼 중요하다.<sup>12)</sup> 관람자는 참여적인 배움과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즐기고 그에 익숙해져 갈수록 문화행사나 기관에 단순한 참석을 넘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관람자가 박물관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그 공간은 문화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의 중심이 된다.<sup>13)</sup> 이것이 신박물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다. 신박물관시대에 소장품의 개념과 관람자의 태도 변화로 전문박물관이 정체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기관 소속 전문박물관은 구박물관시대에서는 부족함

9) 이 논문에서는 신박물관시대 이전 박물관을 구박물관으로 칭한다.

10) 박소현, 「신박물관학 이후,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론」, 『현대미술사연구』 Vol. 29, 2011.

11) 1956년 유네스코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에서 박물관의 정의를 “문화적 또는 과학적 중요성을 지닌 소장품을 연구·교육·향유할 목적으로 보존·전시하는 영구적 기관”으로 정의한 바 있다.

12) 김영국 외 1, 「참여전시의 사례를 통해 본 현대 뮤지엄의 역할과 기능」, 『디자인영상논집』,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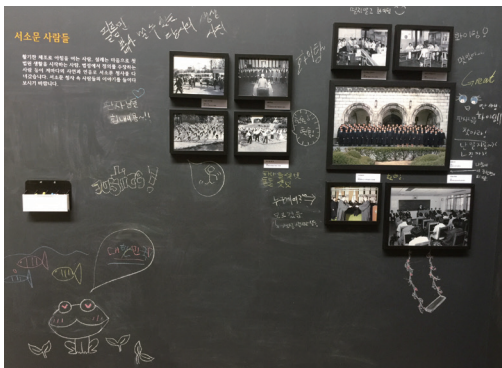
13) 니나 사이먼·이홍관 외 1 역, 『참여적 박물관』, 연암서가, 2015.



이 많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박물관이 관람자와 소통의 플랫폼이 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참여전시 모델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여전시는 관람자가 단순한 관람자에서 전시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가 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전시에서 참여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인터랙티브한 체험전시나 전시장 내부에 키오스크로 방명록 혹은 전시에 대한 소감을 받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전시기획자들이 참여전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관람자에 대한 연구 부족과 참여전시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많은 변수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관은 과연 참여자가 이 프로젝트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결과물이 나올까? 등 의문점을 가진다.

참여 기술의 전문가인 니나 사이먼은 참여전시의 유형을 기여, 협력, 공동제작, 호스팅으로 분류했다. 기여적 프로젝트는 기관이 관장하는 프로세스에 방문자들이 제한적으로 활동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전시를 보고 소감이나 생각을 키오스크 등 매체로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참여전시의 모델이다. 그 예로 2017년에 법원전시관은 대법원 서소문 옛 청사 사진전시에 관람자가 사진을 관람하고 전시 벽에 자기의 생각을 적어 다른 관람자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호응을 얻기도 했다.



법원전시관 2017년 대법원 서소문 옛 청사 사진전 <서소문 법원 연가> 전시 모습으로 일부 전시벽면을 칠판으로 연출함

다음으로 협력적 프로젝트는 기관이 관제하고 참여자가 능동적인 파트너로 활동하는 것이다.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참여자와 기관이 함께 목표를 정의하고 세부사항을 구성한다. 호스팅은 기관이 자신의 시설이나 자원의 일부를 방문자가 개발 및 시행을 할 수 있게 할애하는 것이다. 참여모형이 후자로 갈수록 참여자의 개입도가 높아진다.



참여 프로젝트의 4종류 중에 협력적 프로젝트는 기여적 프로젝트보다 참여자의 개입도가 높으며 기관 주도하의 파트너십으로 운영자가 참여자와 새로운 프로그램, 전시 혹은 결과물을 함께 작업하는 것이다. 협력적 프로젝트는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자문형과 공동개발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 프로그램, 혹은 발간물을 개발할 때 전문가나 커뮤니티 대표자로서 참여해 운영진에게 자문과 지도를 제공한다. 후자는 새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운영진과 참여자가 같이 일한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박물관 현장에서 전시기획자인 학예사가 전공과 무관한 주제 전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연구진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전시가 이뤄지기도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실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공동개발형 프로젝트는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참여자의 관여가 수반된다. 그래서 자칫 교육프로그램처럼 참여자의 학습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위험하다. 국가 및 공공기관은 소수 참여자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개발형 프로젝트는 기관, 참여자, 관람자별로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전문박물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에 따라 내부적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법원 전시관은 내부적 이해부족으로 인한 소장품 부족, 조사연구나 전시를 하는 인력 부족 등이 있었다. 신박물관시대에 특별전시를 니나 사이먼이 제시한 참여전시 중에 협력적 프로그램(공동개발형)으로 기획하였다. 박물관이 가진 내부적 어려움의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은 것이다.

### III. 대법원 법원전시관 참여전시 과정 및 분석

법원전시관은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9월 26일에 개관했다. 법원전시관은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의 생활화를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 설립된 법원전시관은 제한된 전시실 규모, 지나친 어린이 대상 체험시설, 홍보관 이미지가 강했다. 이를 탈피하고자 2013년 3월 리모델링하여 240평 규모로 법원전시관이 재개관하였다.

법원전시관은 개관한 이래로 특별전시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1~2회 특별전시를 운영했다. 2013년 <가인 김병로>, 2014년 <Amazing 세계 속의 사법부>, 2015년 <봄날, 정의를 그리다>, <국민과 미래로>, 2016년 <대한민국 판사의 길>, 2017년 <국민참여재판> 등 매년 특별전시를

운영했다.

본 연구자는 2013~2014년 법원전시관 전시의 주제가 지나치게 대법원의 홍보성이 강했다는 점에 대해 반성했다. 전시가 법원의 업무와 성과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주제라서 관람자는 내용이 어렵고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었다. 법원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해 과연 관람자는 법원전시관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하여 관람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니나 사이먼의 참여모형을 도입했다. 이는 기존 전시들과 달리, 내외부가 쌍방향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법원전시관의 전시 방향이 변화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전시관 <봄날, 정의를 그리다> 참여전시 기획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참여모형 선정

참여전시를 하기 위해 니나 사이먼이 제시한 여러 참여모형 중에 우리 기관과 적합한 것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 니나 사이먼은 박물관에서 참여자의 참여도를 무조건 높게 설정한다고 최고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는 없으며 기관과 적합한 모형을 찾아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참여모형에는 운영자, 참여자 간의 지배권, 운영 관리권, 창작품 산출의 관여 등 검토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었다.

참여 모델 중에 ‘기여’보다 외부 참여도가 높은 ‘협력’과 ‘공동제작’ 모형을 먼저 검토했다. 두 모형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협력 프로젝트는 주요 권한이 운영진에 있으며, 반대로 공동제작은 참여자에게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법원전시관은 기존에 연결된 지역이나 다른 커뮤니티와 교류가 없었고, 참여전시 모델을 처음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관 주도적인 ‘협력적 프로젝트-공동개발형’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 2. 법원전시관 참여전시 <봄날, 정의를 그리다> 기획 및 운영과정

### 1) 전시 주제 선정

전시 기획의 시작은 2015년이 대법원이 서초청사로 이전한 지 20주년을 맞이한 기념적인 연도에서 출발했다. 1948년 9월 13일 사법부가 설립되며, 대법원은 1928년에 고등법원 및 경성복심·지방법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그대로 이어 사용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건물에서 벗어나면서 노후화되고, 협소한 제반시설을 개선한다는 목

적하에 지금의 서울시 서초로 법원을 신축 및 이전했다. 1987년 당시 서울시 소속 서초청사의 부지와 대법원청사 부지를 교환하고 신축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건설되었다. 대법원이 이전한 후 서소문청사는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5년에 신축된 대법원 건물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건물 및 주위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미술품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품 설치계획을 했다. 이를 위해 결성된 법원청사건축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가와 미술작품을 선정 및 설치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의 상징이 된 <법과 정의의 상>과 <장식벽 각자>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은 미술전문가뿐만 아니라 법관 등 여러 관련자들이 함께 의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엄태정의 「법과 정의의 상」, 문신의 「和(화)-95」, 이종상의 「원형상 9501-평등, 9502-정의」, 박충흠의 「정의의 여신상」, 김영중의 「가인 김병로상」, 성완경의 「마음의 거울」, 전혁립의 「한국의 품물」, 오승윤의 「풍광수토」 등이 있다. 이번 전시의 소재를 20년 전에 법원이 국민과 작가들과 작품을 매개체로 소통했다는 점에서 찾았다. 1995년 외부와 참여형 작업으로 법원의 상징을 설정했듯이, 이 전시를 통해 다시 그 기획과 작업을 재생하고자 했다.



주현관 장식벽 각자(刻字)



엄태정, <법과 정의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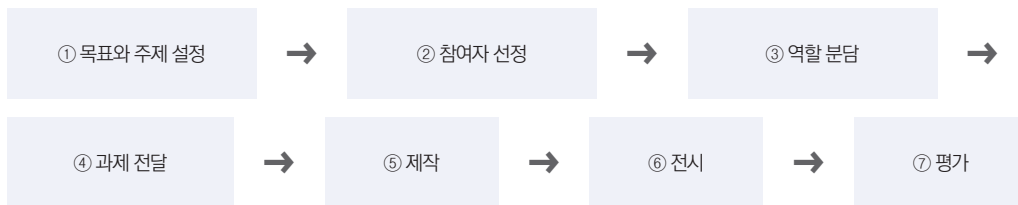
특히, 주현관 장식벽의 글귀는 대법원을 상징할 수 있고 지향하여야 할 바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글귀나 단어를 전 국민대상으로 공모한 결과이다. 총 응모작 150명으로부터 제안된 264개 문안 중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평등·정의’로 확정했다. 각자는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에서 집자한 글자체로 용도와 미적 감각에 맞게 디자인 및 설치했다. 현재 자유·평등·정의는 법과 법원을 상징하는 글귀가 되었지만, 이는 법원에서 주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공모 결과, 즉 국민과의 소통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전시 주제로 흥미롭다고 생각이

되어 주요 내용으로 선정했다.

## 2) 전시 구성

참여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기획과 구성에 있다. 참여적 요소가 잘 수행되려면, 정교한 모형 설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참여전시는 기관에 있어서나 참여자, 그리고 비참여적 관람자에게도 가치있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구성했다. 참여의 설계 방식은 탑 다운이 아닌 구성원 간에 허브로 작용하도록 구성해야 했다.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여섯 단계를 따랐다.



### ① 목표와 주제 설정

협력 프로젝트는 목표 수립에서 시작된다. 기관은 누가 참여자로 들어오고 프로젝트 개발의 구조는 어떻게 짤 것이며, 그리고 협력의 결과는 무엇인가 등의 지침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법원은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법에 의하여 사법을 행사하는 곳이라는 점은 대중이 알고 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법을 어떤 사람이 어떤 절차에 의해 처리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이는 2014년 사법부 통합이미지 설정을 위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이미지가 2.73점(5점 만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낮은 인식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sup>14)</sup> 대중의 이런 낮은 이해도는 법원에 대한 불신과 막연한 두려움을 초래한다.

법원전시관은 법과 법원에 대한 관람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매년 법원과 관련된 주제를 관람자의 눈높이에 맞춰 연출하고자 하였고 이 참여전시도 그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전시의 목표가 법원의 우수한 성과와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법부의 이미지 전달에 있었다면, 이번 참여전시의 목표는 외부자(학생)의 참여로 관람

14) 도모브로더, 『사법부 통합 이미지 설정을 위한 연구보고서』, 2014.

자의 범위 확대에 있었다. 법원전시관의 방문자는 대법원 안에 위치하여 일부러 찾아와야 하는 수고를 무릅쓰고 오는 사람들이다. 그동안의 관람자 유형은 이미 법과 법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법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주류를 이뤘다. 법원전시관 관람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대가 필요했다.

앞서 1995년의 참여 모형을 재생한다는 주제하에 참여자들이 작업할 세부 주제를 설정해야 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원의 모습 그리고 원하는 모습을 외부인인 참여자를 통해 보여지도록 세부 주제를 설계했다.

이에 세부 주제는 ‘사법부 정의를 실현하다’, ‘사법부의 발자국을 따라 걷다’, ‘사법부 국민과 소통하다’로 결정했다. 첫 번째 주제인 ‘사법부 정의를 실현하다’는 법원과 정의라는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사법부의 역사에 대한 주제로 현재 사법부의 모습이 이룩되기까지의 과정을 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 ② 참여자 선정

이 프로젝트는 20년 전에 ‘법과 미술의 만남’을 재생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작가 집단이 참여해야 했다. 처음으로 국·시립박물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신진 작가’를 검토했다. 전시까지 주어진 시간과 결과물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10명 이상의 참여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미 그룹이 구성된 참여단 모집이 필요했다. 처음 물망에 있었던 스튜디오 소속 작가들은 저마다 자기 작품을 진행하고 있었고, 모두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다.

참여자를 특정하기까지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했다. 전시를 위해서는 결과물의 일정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상 선정에 난항이 있자, 다음으로 논의된 참여자 모집 방법은 참여를 원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어 결과물을 받는 것이었다. 흔히 공모전이나 그리기 대회와 같은 형식이었다. 공모전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어, 내부 정책결정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모전의 참여자와는 소통이 어려워 기획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얻기 어렵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같은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주제가 아닌 ‘법원과 정의’는 생소한 주제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피상적으로 다루거나 혹은 선입견을 가진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세 번째로 검토했던 대상이 예술학교 학생들이었다. 예술학교 학생들은 예비 예술가로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대상으로 10명 이상의 모집단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우리 기획의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시킬 수 있고 참여자도 작품 구성에 있어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기존 작가보다 내부에서는 더 매력적인 대상이었다. 기관에서는 미래의 자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이라서 새로운 형식이라 할지라도 유연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

기관이 서울에 소재했으므로 가까운 위치의 예술학교와 첫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대상은 서울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예원학교였다. 예원학교는 1966년 설립 인가를 받아 이듬해 개교한 예술중학교이다. 전공은 음악부, 미술부, 무용부로 구분되며, 총 8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작품 제작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해서 협의는 학기 일정을 구성하는 시기인 1월부터 이뤄졌다. 예술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연간 교육과정과 일정을 연초에 모두 설계한다고 한다. 예원학교의 부장교사회의를 통해 미술부 방과 후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우리는 운영 일정과 예산규모, 전시공간을 고려했을 때 학생 30명의 참여가 적당하다는 의사를 학교에 전달하였다. 방과 후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작업한 작품은 법원전시관에서 전시를 한 후에 그 작품을 그대로 9월 교내작품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을 조율했다. 참여자는 학교에서 유화, 동양화, 펜화로 유형을 구분하여 각 10명씩 30명이 선정되었다. 각 전공에는 지도교사가 있어 학생들이 작품을 하는 과정을 지도 및 지원할 수 있었다.

다음 체크리스트는 협력 프로젝트의 대상 선정 시에 사용한 것이다. 예원학교는 6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번	항목	내용	확인
1	능력	전시가 가능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2	교육	전시를 위한 교육 및 견학에 참여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3	기여	프로젝트의 참여에 일정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4	운영	물리적인 접근이 수월한가? / 중간 관리자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참여 열정	주제를 흥미롭게 생각하는가?	<input type="checkbox"/>
6	참여 동기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③ 역할 분담

토니 베넷(Tony Bennett)은 신박물관에서 박물관과 관람자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학예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함을 제안했다. 기존 학예사는 지식의 특권적 지위를 전제로 한 독점적인 전문가에서 벗어나 박물관 외부에 있는 집단들이 박물관의 콘텐츠를 활용해 박물관 내에서 발



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5)</sup> 신박물관시대 학예사의 역할 변화는 박물관 직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규모가 큰 박물관 직원들의 기존 역할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 방침과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박물관 혹은 학예사가 한두 명인 경우는 그 역할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협력 프로젝트에서 전시기획자는 과정을 통제하지만 참여자가 기획대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때 기획자는 참여자와 파트너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가 프로젝트에 임할 때 주인의식을 갖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내부 정책결정자들이 참여전시 계획안을 처음 봤을 때 관심과 우려를 표했다. 관심의 이유는 전에 직접적인 홍보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전시에서 탈피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또한, 법과 미술의 만남이라는 주제가 대중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으며,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도 흥미롭게 여겼다. 이에 반해 우려 되는 점은 학생들의 작품이 관람자에게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전시를 할 수 있는 결과물일지, 참여자가 주제의 이해도가 낮아 법원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지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사실 참여전시를 통해 다른 관람객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기획자도 우려가 되는 점이었다. 참여전시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결과물이 예측불허라는 것이다. 물론 작품의 개념을 잡을 때 운영자들의 개입이 있겠지만, 결국 참여자가 결과물을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결과물과 나아가 관람자의 반응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자가 참여전시를 주저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이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관람자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설계를 하지 못했다. 법원전시관의 방문자도 예기치 못한 작품을 관람하는 것이 흥미로울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효과를 가진 채 진행하였다.

#### ④ 과제 전달

과제 전달을 위해 2015년 3월 11일 대법원에 참여자가 방문하였다. 주요 전달사항은 전시 주제 및 기획의도, 주제와 관련된 자료였다. 대법원 견학은 법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의 기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정, 대법원 홀 및 회의실, 법원의 상징물 및 작품 견학뿐

15) 박소현, 「신박물관학 이후,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론」, 『현대미술사연구』 Vol. 29, 2011.

만 아니라 법원의 구성원 중에 하나인 판사와의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에게 전달한 자료는 세부 주제별 내용과 대법원청사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에 대한 내용을 20페이지 가량으로 정리한 원고와 사진 및 영상이었다. 참여자가 작품 구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 창구도 열어주었다.



대법원 견학



대법원 견학

## ⑤ 제작

참여 학생들은 3월 11일부터 4월 중순까지 4주 동안 작품을 제작하였다. 처음 참여자를 설정할 때부터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로 정규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작품을 제작하였다. 참여자의 작품은 유화, 한국화, 펜화 3가지의 유형으로 10명씩 진행하였고, 전공별 교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담당교사도 참여자와 함께 대법원 견학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 전공 담당교사가 운영자 및 전달자 역할을 하였다. 전시기획자는 4월 초에 학교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참여자와 공유하였다.



작품 구성 - 유화



작품 제작

## ⑥ 작품 선별과 전시

제작과정에서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최종적으로 29명의 참여자와 29개의 결과물

(작품)이 완료되었다. 참여자 작품의 표구 및 관련 경비는 모두 기관에서 부담하였다. 또한 전시 네임카드에는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게 했으며, 개막식 행사에서도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도록 했다.

기획자는 전시에 모든 작품을 전시할지, 선별한 작품만 전시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했다. 이 협력 프로젝트의 참여자가 학생이며 청소년이라는 점과 참여전시의 목적에 교육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각 주제의 대표가 되는 작품은 주제별 맨 앞쪽에 위치하기로 정했다. 또한 전시 연출방식과 순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기획자의 의도로 진행하였다.

다음은 협력 프로젝트의 참여자의 결과물(작품)이다.



「봄이 오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길 바란다. 정의의 여신상을 향한 저 많은 손은 비록 얼굴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억울함, 슬픔, 절망 속에서 정의를 달라고 외치는 듯하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의의 봄을 선사해 주는 사법부를 그렸다.



「금옥만당(金玉滿堂)」

나라에 현명한 법조인이 넘쳐 법 앞에서 국민이 자유·평등·정의를 누리고 금과 옥이 가득해져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다.





#### 「꿈의 세계로」

쭉쭉 뻗은 직선과 직사각형 창문들의 절묘한 조화를 보이는 대법원의 건물은 한없이 진지하고 엄숙해 보여 우리와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라는 느낌을 들게 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재판을 하는 곳이므로 화려한 색채와 정이 가고 귀여운 이미지를 통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고 따뜻함을 느끼는 곳임을 나타내고자 했다.



#### 「정의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길」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게 참혹히 짓밟힌 우리 선조들의 고무신과 버려진 짚신, 그리고 다시 찾아온 아픈 전쟁을 나타내는 군화, 그러나 법과 우리 국민들이 고통과 쓰라림을 딛고 일어서 함께 가꾸어가는 우리의 길, 그리고 모두가 발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담았다.



#### 「동행」

‘한결같이 국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국민과 사법부를 서로 맞잡은 두 손으로 표현했다. 하나가 된 두 손은 서로를 이끌고 의지하는 가족처럼 평생을 국민과 동행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뜻한다.



#### 「나의 길을 밝혀주는 법원」

그림 속 교복이나 교과서 등은 ‘나’를 나타낸다. 그 속에 양초를 두어 법원이 나의 길을 양초처럼 밝혀준다는 것을 표현했다. 또한 사법부에 관한 내용이 적힌 교과서를 통해 나의 생활 속에 법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렸다.

## ⑦ 평가

이번 전시를 통해 참여자와 내부 기획자, 관람자 각각의 요구가 충족된 의미 있는 전시로 평가받았다. 참여자는 생소한 주제인 법과 법원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작품제작을 하는 기회를 가진 점을 가장 만족해했다. 함께 참여한 담당교사도 학생들이 작품 구상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고민했던 적이 없었다며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기관 내부 정책 결정자들도 학생들의 전시에 매우 만족하였는데, 특히 우려되었던 결과물이 법원이 원하는 이미지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성과는 법원전시관의 기획 방향이 폭넓은 관람자를 위한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법원전시관은 대법원의 견학 코스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 이 협력 프로젝트로 내부적으로 법원 내 박물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관람자들과 소통하는 전시의 중요성이 공론화되었다. 그래서 이 전시 이후는 모두 관람자를 고려한 주제로 기획되었다. 2016년 법원전시관 전시 주제를 판사로 택했다. 법원전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이다. 그들에 대한 소소하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실물과 영상 등으로 전시하였다. 처음 판사가 되기 위한 시험부터 그들의 책상, 판사로서 업무의 범위 등을 볼 수 있었다. 2017년 전시 주제는 일반 사람도 판사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이 재판이 주는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 사건을 각색한 내용을 가상의 공간에서 직접 판결을 해보는 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이는 이전의 전시가 일방적 전달에만 집중했다면, 관람자의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법원의 이해를 넓히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획자는 전시 개막 때까지도 관람자에게 어떤 경험을 줄지 예측하거나 따로 설계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시를 개막하고 나서보니 외·내부 관람자의 관심도가 높았다. 외부관람자는 청소년인 참여자의 작품을 통해 법과 법원에 대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이 던진 질문과 이야기에 방문자의 새로운 의견과 생각이 더해졌다. 가장 큰 수확은 기관 내부의 관심이었다. 기관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여러 내부직원들에게 법원전시관의 존재감은 아주 작았다. 이번 전시로 내부에서도 현재 청소년 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법부에 대한 생각과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긍정적 반응을 했다. 다음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 및 관람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 참여자(2명) 인터뷰

##### 1. 김○○ 학생

“처음엔 법과 정의를 머릿속에 구체화시키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지난 3월 대법원 견학과 판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이해를 얻고 자신감도 생겼는데, 막상 스케치에 들어가니 다시 막막해졌어요. 스케치를 하고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이 시험이랑 겹쳐 두 배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전시를 해놓고 보니 그만큼 보람도 큰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법과 법원이랑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 2. 송○○ 교사

“이번 프로젝트를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전 교육과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법, 정의 등 법과 관련된 용어들은 어른이자 선생님인 저에게도 참 어려운 것들인데 학생들에게는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지난 3월 11일 대법원 법원전시관 견학과 판사님과 대화를 통해 정체불명의 개념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올 때쯤 학생들은 이해를 넘어 ‘판사’라는 직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듯했어요. 학생들은 대법원 견학과 판사님과의 대화 덕분이었는지 생각보다 빨리 이해를 했고 조금씩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시켜 나갔어요.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는데도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해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이런 기회를 주신 대법원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관람자(4명) 인터뷰

##### 1. 박○○ 주부

“법원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작품을 보다보니 더욱 친근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들의 작품이 멋지네요.”

##### 2. 김○○ 학생

“법원 견학을 왔다가 관람하게 되었어요. 우선,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 놀라웠어요. 옆에 글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그림을 이해하기 쉬웠고 법원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었어요.”

##### 3. 정○○ 회사원

“업무상 왔다가 우연히 관람하게 되었는데, 흥미로웠어요. 학생들의 작품이라는 것이 놀라웠고, 법원에서 이런 행사도 하니 좋은 것 같았어요.”

##### 4. 김○○ 내부직원

“궁금해서 왔어요. 그동안 직원인 저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그려낸 학생들이 대단하네요. 그림을 보면서 즐거웠습니다.”

전시공간을 법원전시관 앞에 통로를 막고 가벽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평소와 특별전 간의 양적 관람 비교를 하지 못한 점과 평가를 위해 참여자와 심도있는 면담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니나 사이먼은 참여 프로젝트 과정에 평가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학생들의 일정이 바빠서 추가적 면담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기획자가 마지막 단계인 평가를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운영 및 계획하였다. 평가는 다음 프로젝트 설계를 위해서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부터 고려하지 못한 점이 부족했다.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설계에 있었다. 특히 파트너인 참여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사전에 상호적 협의가 되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참여자가 학교라는 기관에서 모집되었고, 담당교사를 통해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과 기획자가 학교에서 교육일정을 구성하기 전에 상호



협이가 있었고, 학생들의 작품을 9월 학교내부에서 운영하는 전시회에 출품할 것까지 계획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참여자들 모두가 만족스러운 최종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었다. 참여자에게 정확한 역할과 동기부여가 작품 완성의 책임감까지 부여했다. 이 프로젝트의 대상이 학교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였거나 다른 단체였다면 기획자의 역할은 이와 달랐을 것이다. 또한, 기획자는 외부 참여자와 내부기관 사이에 중심을 잡고,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였다고 여겨졌다.

## IV. 결론

2006년 크로아티아에 이별박물관(Museum of Broken Relationships)<sup>16)</sup>이 개관했다. 이 박물관에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유물이나 작품, 학예사의 연구사적 설명도 없다. 그 대신 실연한 사람들이 보내온 물건과 그들의 사연으로 채워졌다. 현재 이별박물관은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그 나라의 새로운 기증품과 사연을 받아 전시 및 수집하며 세계에서 큰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박물관이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박물관의 역할이 변화하는 신 박물관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신박물관 시대를 맞이하면서 박물관이 모든 분야와 활동에서 관람객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박물관은 사회적 담론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고, 방문자들과 상호작용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은 다양한 해석 방법으로 전시와 교육을 통해 관람객으로 즐겁고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내외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신박물관의 흐름에 따라 소장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소장품이나 전시에 취약했던 박물관들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박물관의 터딘 성장의 이유와 내부적 한계점을 대법원 소속 법원전시관을 통해서 살펴봤다. 법원전시관은 소장품 결여, 종합박물관 흉내내기식 상설전시, 소장품 확보와 학예인력의 부족, 기관 내에 홍보관이나 자료관으로 인식되는 이미지와 박물관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외 등의 문제점을 밝혔다. 신박물관의 흐름에 따라 기획전시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그 돌파구로 참여전시를 선택하였다. 참여 모형의 전문

16) Olinka Vištica, Dražen Grubišić, 실제 연인이었다가 헤어져 서로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어 이별박물관이 설립되었다. 2011년 유럽 뮤지엄 포럼(European Museum Forum)이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박물관에 수여하는 “올해의 유럽 뮤지엄케네스허드슨상(European Museum of the Year Kenneth Hudson Award)”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독창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전시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전 세계를 순회하며 수집과 전시를 하며,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가인 니나사이먼의 ‘협력 프로젝트-공동개발형’ 모델을 전시에 시도했다. 전시 계획을 위해 목표와 주제를 설정하고 참여자를 선정하여 제작부터 전시까지 진행했다. 이 전시를 통해 기관과 참여자, 관람자까지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기획자로서 가장 큰 수확은 전문박물관의 관람자의 층을 넓히고 이 전시를 기점으로 박물관의 전시방향이 관람자 중심으로 바뀐 점에 의의가 있었다. 내부적으로 관람자 중심의 박물관 운영을 이해하게 되었고, 전시의 주제설정부터 관람자를 고려하게 되었다.

전문박물관은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교육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양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박물관의 전문화는 박물관의 연구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전문박물관이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 참고 문헌

- 나나 사이먼·이홍관 외 1 역, 『참여적 박물관』, 연암서가, 2015.
- 이난영, 「박물관의 전문화」, 『박물관학보』, 한국박물관학회, 2000.
- 조지 엘리스 버코, 양지연 역,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 김영사, 2001.
- 도미니크 폴로, 김한결 역, 『박물관의 탄생』, 돌베개, 2014.
- 윤병화 외 7, 『신박물관학』, 신광문화사, 2015.
- 키어스튼 F. 라탐·존 E 시몬스, 배기동 역, 『박물관학의 기초』, 주류성, 2019.
- 김영국 외 1, 「참여전시의 사례를 통해 본 현대 뮤지엄의 역할과 기능」, 『디자인영상논문집』, 2004.
- 조한희, 「박물관 방문객 분석에 의한 기업박물관의 운영전략」, 『박물관학보』 4, 한국박물관학회, 2001.
- 정춘옥, 「유물의 수집과 활용방안 모색-경기도박물관 대상으로」, 『박물관학보』, 한국박물관학회, 2014.
- 이경록, 「한국의약박물관의 성과와 발전 방향」, 『박물관학보』, 한국박물관학회, 2006.
- 김영주, 「한국 군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박물관학보』, 한국박물관학회, 2006.
- 도모브로더, 「사법부 통합 이미지 설정을 위한 연구보고서」, 2014.
- 박소현, 「신박물관학 이후,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론」, 『현대미술사연구』 Vol. 29, 2011.
- 세계박물관협회 편·하태환 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경영』, 궁리, 1996.
- 이미화, 「특수박물관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립경찰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수미, 「특수, 전문박물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연구 : 금융박물관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채송화, 「국내 의학전문박물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나경인, 「전문박물관의 마케팅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풀무원 김치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현주, 「국내 금융전문박물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주선, 「사립 전문박물관의 관람객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윤희, 「전문박물관의 자료 특수성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 공연예술 관련 전문박물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서진선, 「청소년 대상 참여적 박물관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지역기반 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정혜연, 「한국영화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대옥, 「철도박물관을 활용한 고등학교 역사 수업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최윤정, 「조직 구성원 참여를 통한 기업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금융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태규, 「영화박물관 계획에 관한 연구-영화기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현성, 「서울올림픽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연아, 「국회  
헌정기념관 전시공간의 연출매체 분석을 통한 전시개선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민아,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국립경찰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Abstract

### Study on the Participatory Exhibitions of Museums with a Specialty under the Government or Public Agencies —Centered on the Court Museum of the Supreme Court—

Hyo-Jung, Park

National Sports Museum Exhibition Preparation Team

The establishment of museums with a specialty under governmental or public agencies aims to realize public relations that manifest the preservation and succession of those agencies. Since the 2000s, however, their operation and vitalization have developed at a relatively slower pace compared to their rapid increase in numbers. The major problems of museums with a specialty under the agencies are a lack of curators and or collection, resulting in difficulties in producing new contents. In particular, some of the museums were unable to hold special exhibitions or held them for more than one year. The Court Museum of the Supreme Court has many problems: permanent exhibitions only imitating the general museums, lack of collection and curators,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works of the museum within the agency, among others.

Those museums that are lacking a collection or are vulnerable to holding exhibitions have been presented with fresh opportunities with the advancement of an era of new museums that involves a new awareness on the collection.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cases in which museums with a specialty found their development plans in participatory exhibitions to be in line with a changing environment for museums. It is the participatory exhibition of the Court Museum of the Supreme Court which was designed by the cooperative project-collaborative development model suggested by Nina Simon among other models. This exhibition broadens the scope of the audience and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previous direction of the museum. The agency came to understand that the operation of the museum centered on the audience, and afterwards, it started to consider the audience rather than the public relations of the agency from the phase of deciding the themes of the special exhibitions. Thus,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process of the participatory exhibitions of the Court Museum of the Supreme Court that can be an exemplary case to seek for the appropriate ways to create new contents.

key words: participatory exhibitions, museums with a specialty, Court Museum